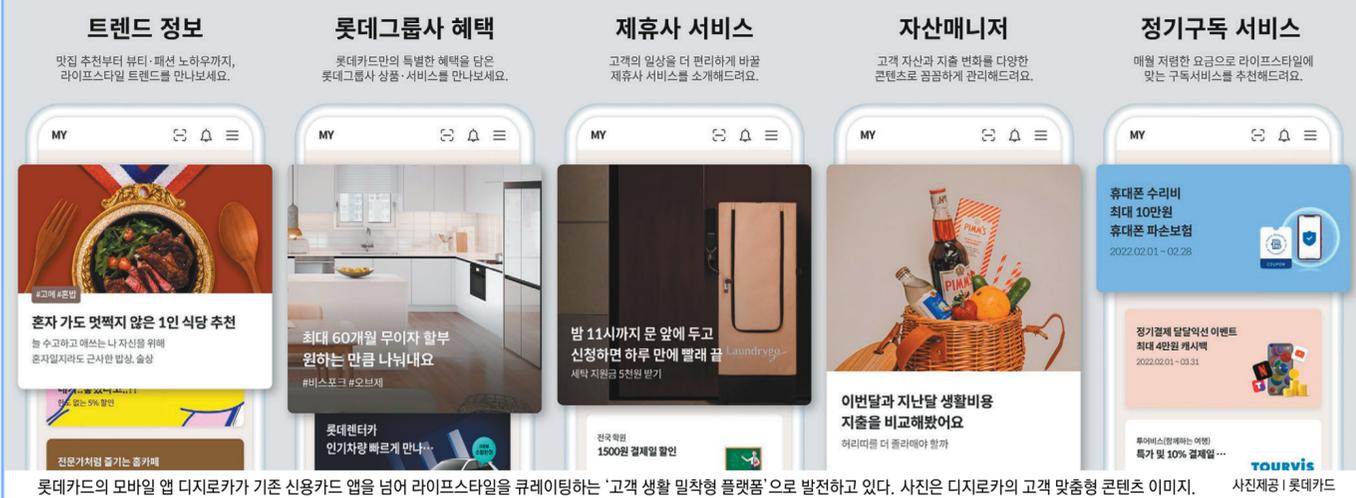


단순 신용카드 앱 넘어 금융·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롯데카드의 모바일 앱 디지털로카가 기존 신용카드 앱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큐레이팅하는 '고객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은 디지털로카의 고객 맞춤형 콘텐츠 이미지. 사진제공 롯데카드

롯데카드 "디지털 큐레이팅 컴퍼니로 도약"

앱 명칭 로카에서 '디지털로카'로 변경 유통 계열사별 최대 혜택 미리 추천 OTT·차량 공유 이용 등 서비스 확대 카드 사용 안해도 '마이데이터' 이용 지출 분석 등으로 특화된 소비 도와

롯데카드의 모바일 앱 디지털로카가 '고객 맞춤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앱 명칭을 기존 로카에서 디지털로카로 변경하고, 단순 신용카드 앱을 넘어 고객의 금융 및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한다.

여기에는 금융을 포함한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나겠다는 롯데카드의 포부가 담겨있다.

●고객 취향 분석 후 선제적 콘텐츠 추천

먼저 디지털로카의 운영 방식을 기존 카드 상품과 회원 및 가맹점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중심의 고객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로 전환했다. '고객 취향 분석'과 '선제적 콘텐츠 추천'이 핵심 서비스다. 고객 취

향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를 발견하고 이와 연관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앱에서 미리 추천하는 방식이다.

롯데카드의 혜택, 제휴사 서비스, 정기구독, 트렌드 정보, 마이데이터 '자산매니저' 등이 대표 콘텐츠다. 이 중 롯데카드 혜택은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온 등 유통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 편리하고 실속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전에는 매장 방문 고객에게 카드 혜택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디지털로카의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구매에 앞서 유통 계열사의 최대 혜택을 미리 추천하는 게 큰 차이점이다.

회사 측은 "디지털로카 앱에서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콘텐츠 형태도 변신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및 유통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협업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

드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 차량 공유 서비스 벅스, e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 홈플러스 서비스 청소연구소 등이 대표 제휴사다.

이밖에도 저렴한 월 요금으로 쇼핑, 문화,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를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구독과 맛집, 쇼핑, 여행, 뷰티 등 최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연관 혜택을 기사 형태로 소개하는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자산매니저로 지출 변화를 한 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자산매니저'도 만날 수 있다. 고객 자산 및 지출 분석, 맞춤 카드·보험·대출 상품 추천, 고객 소비패턴 기반 개인화 콘텐츠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편리한 자산관리를 돕는다. 롯데카드 미사용 고객도 디지털로카 앱에서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자산관리'와 '맞춤 금융 상품' 두 가지 카테고리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자산관리는 계좌·예금, 투자, 연금, 보험, 대출, 카드 등 여러 자산 정보를 모아서 조회할 수 있는 '내 자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내역'으로

구성했다.

맞춤 금융 상품은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카드를 찾아주는 '카드 추천 서비스', 고객이 보유한 보험 상품의 혜택을 진단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 여러 대출 상품의 금리를 조회 및 비교할 수 있는 '금리비교 서비스' 등으로 꾸렸다.

이밖에도 고객 소비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개인화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월납일, 만기일, 수익률 등을 안내해주는 '케어 서비스', 고객 거주 주변 선호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우리동네 베스트', 주 소미 업종의 3개월간 사용 및 변화를 알려주는 '지출 변화 분석' 등으로 고객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다.

회사 측은 "자산매니저는 고객 개개인을 위한 밀착 자산 및 지출 관리 서비스로, 고객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향후 금융상품 외에도 쇼핑과 여행 등 다양한 생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산업은행 고객, 하나은행 점포서 업무 보세요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 본격 시작 디지털금융 소외층 불편 해소 앞장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양사가 지난해 8월 체결한 '정착금융·상업금융 성공적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산업은행 고객

은 하나은행이 보유한 612개 영업점과 3576대 자동화기기를 산업은행 채널처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청약상품, 개인신용대출, 정부 연계 상생협약 상품 등 다양한 개인금융 상품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또 하나은행의 전문 프리비트 뱅커(PB)를 통해 상속 및 증여, 리빙트러스트 등의

차별화된 자산관리(WM)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 측은 "산업은행과의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 및 금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고객 중심 금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5일(화) 음력: 3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에 얽매고 고봉을 맞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낭비에 주의하라.	문서변화에서 명제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집안일이나 친척문제도 바쁜 일이 생겨난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화를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이탈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며 곤란한 야기 시킨다. 변화가 있는 날이다. 대인관계에 신경쓰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인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겠으나 무난히 해결 될 것이다.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결단력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분주한 활약이 기대된다. 주변의 도움으로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으니 주변인들과의 연쟁이나 다툼에 주의하라. 사업 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겠고 의외의 성과가 기대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조폭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사업상 또는 사적인 일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원숭이따위 귀인이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오게 되고 뜻하지 않은 투자 운이 생기며 선배나 주위의 도움으로 원하던 일이 성사될 것이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일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금융

스포츠동아 2022년 4월 5일 화요일 15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왼쪽부터). 사진제공 우리금융

우리금융, e스포츠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우리금융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e스포츠협회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 e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개 부문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올해를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완성의 해로 정한 우리금융은 이번 후원을 통해 디지털 종합금융그룹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의 자리매김을 노린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MZ세대가 열광하는 e스포츠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대표팀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17기 모집

KB국민은행이 11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KB캐ampus스타' 17기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KB스타뱅크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100여 명을 선발한다. SNS 활용 능력과 디자인·영상 편집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우대한다. 최종 선발자는 5~11월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미션별 추가 포상금을 지원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신입행원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KB국민은행의 실무자로 구성된 취업 멘토링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최대 연 2.8% '야구 적금' 출시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이 '2022 신한 프로야구 적금'(사진)을 내놓았다. 1년제 자유적금 상품으로, 월 저축한 도는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기본

금리 연 1.5%, 우대금리 연 1.3%p를 적용해 최고금리는 연 2.8%다. 우대금리는 조기가입 보너스 연 0.2%p(6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 고객이 선택한 구단이 승리할 때마다 연 0.01%p(최고 0.70%p), 모바일뱅킹 신한 솔(SOL)의 야구전문 플랫폼 '솔야구' 콘텐츠 4회 이상 참여 시 연 0.4%p가 제공된다. 회사 측은 "야구팬에게 재미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5일(화)		
서울 10/0	인천 10/10	춘천 20/0	강릉 0/20	대전 0/20	전주 0/30
9 16	6 13	1 17	9 21	3 18	3 18
광주 10/20	대구 0/30	부산 0/20	5 18	6 21	9 18
창원 0/20	제주 20/20	지역	6 19	9 17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9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희용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